

## 속담을 통해 본 대학생의 전통적 자녀관

Korean Students'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in Family  
 -by asking the agreement on the proverbs-

곽혜경(Kwak, Hae Kyung)\*, 강기숙(Kang, Gi Sook)\*\*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통적 자녀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지역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통적 자녀관에 관한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가족주의 자녀관에 관한 찬성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전통적 자녀관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딸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의식이 더 적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주의 자녀관에 약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할수록 남아선호의식이 적고 딸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선호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양육책임기간은 딸에 대한 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전통적 자녀관, 가족주의 자녀관, 남아선호, 딸 가치관, 자녀양육의 어려움

\* 제1저자 : 한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박사수료 g9974021@daum.net

## I. 서론

### 1. 문제제기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가치관의 재정립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출산력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국민소득, 도시화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양육비용 등의 경제학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가치관, 직업관, 양성평등의식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자녀관에 대한 연구들이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녀관이란 가족가치관의 한 영역으로서, 자녀에 관한 전반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또한 구조의 변화, 기능의 약화, 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역할 태도의 변화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가족가치관 및 자녀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은 효를 근본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치관, 가장권의 계승과 관련된 혈연중심의 가치관, 남성우위의 성별차등의 가치관, 수직적 가족관계의 확립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비해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사회 환경의 조건에서 사회화된 기성세대와는 대립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적 가치관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집합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그리고 인간주의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자녀관의 변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자녀관은 변화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상당히 민주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남아를 통한 가계계승이라는 부계가족제도의 전통적 가치관과 남아선호의식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양육이나 교육의 면에서는 아들과 딸간의 구분이 많이 사라졌으며 자녀수에 있어서도 이상적으로는 자녀가 많은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희망 자녀수나 실제 출산 자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몇 명이 적당한가, 아들은 꼭 있어야 하는가, 자녀는 누가 어떻게 키우고 어떤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부모-자녀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이 일반적으로 자녀관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잠재적 출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주의 자녀관, 남아선호의식,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 등의 전통적 자녀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전통적 자녀관이 미래의 출산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생애주기로 볼 때 아직은 자녀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지 못한 시기이므로 은유적 접근의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해온 속담들은 우리의 내면적 가치를 표면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속담의 비유적 속성은 그 시대의 전통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속담의 사용을 통해 우리는 은연중에 자신의 내면적 가치관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속담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일상체험에서 얻은 세속적인 생활의 지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속담은 한 사회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 전통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지식을 반영한다(김종택, 1994). 속담은 간결한 형식의 일상적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일상 대화에도 자주 쓰여 왔다(최창렬, 2002). 그리하여 젊은 세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속에 담긴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속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왔기 때문에 속담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의 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교육부, 1999). 그동안의 속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인지적 능력에 관한 연구(Douglas & Peel, 1979; Gibbs & Beitel, 1995; Nippold, Martin, & Erskine, 1988)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아동에 대한 이미지나 아동양육 속담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속담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문헌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의 발달(조복희·이주연, 2007; 조복희·이주연·강기숙, 2007; 김혜정, 2007; 오소정, 2001; 최하나, 2006), 자녀관과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속담에 관한 인식연구(조복희·이진숙, 1998; 조복희 외, 1998)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의식 속에 전통적 자녀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대비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들의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과 전통적 자녀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가족주의 자녀관과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의식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상적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선행연구 고찰

우리 사회의 전통적 자녀관은 오랜 세월동안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되어왔다. 이효재(1990)는 전통적 자녀의 가치를 영생의 욕구, 혈통계승, 생활보장책,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개인의 인격완성에 두었다. 자녀가 있어야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가족주의 가치관은

특히 아들을 선호하고 딸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된다. 전통적 자녀관은 아들을 선호하고 부부생활보다 자녀양육이 우선시되며 자녀는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대적 자녀관은 아들과 딸을 평등하게 보며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우선시되고 자녀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민주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가치지향을 의미한다(조미숙, 1999).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상당히 변화해서 부자중심가족에서 부부중심가족으로 변하고 부모자녀관계는 민주적으로 변화하였다. 자녀의 의미를 전통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서나 노후부양을 위한 수단에 두기 보다는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자녀 자체가 주는 심리적 만족감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 1) 남아선호와 부정적 딸 가치관

부계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전통적 남아선호의식의 변화는 양육이나 교육 등에서 아들과 딸 간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박인덕, 1979). 그 결과 90년대 우리나라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남아선호의식에서 상당히 벗어나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김성은, 1994; 양명숙, 1996; 홍금자, 1990).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형제자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으며 남아선호의식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성한기, 1997; 송영석, 1993). 김승권·최민자·이연주·박정한·선우덕·조성현·곽혜경·조애저·김유경·강옥희(2003)의 연구에서도 12-39세의 미혼남녀 4,043명 중에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그쳤으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응답도 37.0%에 달하여 45.0%가 꼭 있어야 하거나 있는 편이 낫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이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가부장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던 한국에서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뉴욕타임스, 2007. 12. 23). 여아 1인당 남아의 비율이 116.5명에서 2006년 107.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말 민주화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성취업기회의 확대, 태아성별검사의 금지는 물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식의 캠페인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권용은(2003)에 의하면 아들에 대한 선호는 1973년 70.6%, 2002년 24.1%로 낮아진 반면에 딸에 대한 선호는 1973년 5.9%에서 2002년 22.2%로 증가하였다.

### 2)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

남아선호의식과 함께 자녀양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 자녀관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전통가족에서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조복희·이진숙, 1998a).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전통사회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나, 전통적 자녀관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의 즐거움보다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강조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설영숙(1977)은 자녀의 가치란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

대하는 심리·경제·사회적 만족과 부담을 의미하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만족과 부담의 균형수준이 출산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족주의 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만족의 심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녀의 긍정적 가치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념적 어려움에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해져 부모들이 실제로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는 반면 자녀의 긍정적 가치는 축소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 3) 가족주의 자녀관

유교를 기본 사상으로 하는 가족주의가치관은 지배종교의 혼란과 식민지화, 광복, 전쟁 등의 전통적 지배체제의 몰락과 산업화를 거쳐 현대적 가족주의로 변화를 거듭하여 개인에게 내면화 되어 우리사회의 중심원리로 자리잡아왔다(신수진, 1998).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가족 성원을 돌보고 양육·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가족주의 가치관의 세력이 나날이 쇠퇴하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구성원 개인보다 가족집단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가족주의 가치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이기 이전에 가족의 일원임이 요구되고, 따라서 자녀 또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된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 간의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영속적인 개념으로 가진 특정한 행동양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계가문의 영속화는 가계의 지속을 통해 유지되는 전통 사회에서 가계 유지와 조상숭배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가문의식, 가계계승, 가문의 발전, 자녀의 의미, 제사, 입양으로 구성되어 있다(옥선화, 1989). 따라서 가족주의 자녀관이란 '부계가문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녀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옥선화(1989)는 연구대상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찬반 중립적 입장보다는 약간 찬성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수현(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은 보통을 밀도는 수준으로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의 경향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한편 신수진(1998)의 연구결과는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의 인식 정도에 따라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문화가 사회문화로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사회질서가 '가족중심적'이라면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가 가족에 의해 매개되는 정도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가족주의 자녀관을 엿볼 수 있는 한남제(1985)의 연구결과는 노후에 의존하기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적어지고 있으나 자녀가 있어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가정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견해와 자녀를 통한 가계계승의 중요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성부(2003)의 보고서에는 자녀가 필요한 이유를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나 '노후부양을 위해서'라 답한 사례는 5.8%에 불과하였으며, 고경애(2006)의 연구에서도 5.1%가 '노후의 경제적 부양'에, 2.1%가 '가계 계승'에 자녀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 더욱이 김승권 등(2003)의 연구에서는 아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사례는 25.9%에 불과하였으며, 아들의 부양을 받아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또는 경제적 도움을 받기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 4) 전통적 자녀관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의 관련성

자녀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대체로 성별, 종교, 아버지학력, 모 직업, 형제자매 수에 따라 자녀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윤미라, 2006), 여성이 남성보다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양명숙, 1996; 조미숙·오선주, 1999),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영미(200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전통적 자녀관에 더 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김승권 등(2003)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아들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아선호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보고도 있었다(옥선화, 1989). 한편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은 성별과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강하며, 불교신자가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보다 더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수현, 2003).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가족역사를 제공하는 역사가의 역할과 생활의 기초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는 훈육자의 역할을 하며(서동인, 1996),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그들 간의 동거여부와 접촉빈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현주, 2006). 따라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을 통해 전통적 자녀관을 전수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주영미(2002)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지위가 낮을수록, 도시지역에서는 확대가족인 집단이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청소년이 조부모세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복희·안선희·이영환·이진숙(1998b)의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에 따라 부부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5) 전통적 자녀관과 가족주의 자녀관의 관계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 자녀관이란 부계가문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녀관을 의미한다. 부계가문의 영속화는 필연적으로 남아선호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가족주의 자녀관에서

자녀 특히 아들은 가문의 대를 잇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임무가 주어지며, 따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는 부모나 문중의 의견을 묻고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전통적 자녀관의 하위요인으로 선정한 남아선호의식은 가족주의 자녀관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는 반대로 가족주의 자녀관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의식을 경감시켜줄 가능성이 있다. 설영숙(1977)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만족과 부담의 균형수준이 출산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대하는 부담감에 비해 기대하는 만족감이 크면 자녀를 더 갖기 원할 것이며, 부담감이 만족감보다 크면 덜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 6)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 자녀수 및 자녀양육 책임기간

과거에는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녀출산으로 이어졌으며, 자녀는 가족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출산력에 대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박수현(2003)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족의 자녀출산기능과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 충원의 기능에 대하여 요구도는 낮게 평가하고 수행도는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여 앞으로 출산율이 더욱 더 낮아지리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김승권 등(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8-39세의 미혼남녀 4,043명 중 37.4%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 73.7%, 2000년 58.1%에 비해 더 낮은 수치로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립적인 응답까지 포함하여 보면, 본 연구대상과 유사한 연령대만을 살펴볼 때 18-19세의 30.9%, 20-24세의 40.7%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각각 76.2%와 80.1%가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보경(2005)의 연구에서는 88.1%가 고경애(2006)의 연구에서는 82.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그래도 아직은 결혼하면 자녀를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젊은 미혼남녀의 70-80%가 결혼 후 자녀를 낳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 미혼남녀들이 상당 비율 존재한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자녀수는 실제로 결혼 후 출산하게 되는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 기혼여성의 이상적 자녀수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상자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2003). 송영석(1993)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197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여겼으나,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1970년대 후반부터는 2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나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고령층 집단에서 다시 3명 또는 그 이상도 좋다는 대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의 분석결과이다. 김승권 등(2003)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15-44세 기혼부인의 이상 자녀수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1명 수준에서 0.1명

내외의 증감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18-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승권 등(2003)의 연구에서도 평균 이상 자녀수가 2.16명으로 나타났다. 이상 자녀수에 대하여 전체의 71.1%가 2명이라 응답하였으며, 17.5%가 3명이라 응답하였으며, 0명이라 응답한 비율은 0.1%뿐이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보경(2005)의 연구에서는 평균 1.58명으로 41.0%가 2명, 37.5%가 1명이라 응답하였고 0명도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경애(2006)의 연구에서는 평균 2.21명으로 59.2%가 2명, 21.9%가 3명이라 응답하였고 4.8%가 0명이라 답하였다.

그러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와 실제로 희망하는 자녀수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송영석(1993)은 희망자녀수는 1965년에 3.9명이었던 것이 1976년에는 2.77명, 1985년에는 2.00명, 1993년에는 1.91명으로 점차 소자녀 가치관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김승권 등(2003)의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평균희망자녀수가 2.08명으로 나타나 이상 자녀수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상자녀수와 희망자녀수는 보통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과거에는 이상적 자녀수보다 희망 자녀수가 많았던 데 비해 오늘날에는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상 희망하는 자녀수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에 투자되는 물리적 심리적 비용과 함께 자녀양육 책임기간은 양육부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영향을 준다. 김승권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교육, 정서적 발달,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녀의 성장정도에 따라 부모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18-19세와 20-24세 응답자의 46.57%와 41.7%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고졸까지'는 20.4%와 22.6%, '취업까지'는 11.7%와 13.21%, '결혼까지'는 11.23%와 12.3%를 차지하였으며,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9.1%와 8.8%에 이르렀다.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자녀의 성인기 이후까지로 인지하고 있을 경우 부모가 느끼는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고졸까지'가 32.2%, '대졸까지'가 31.6%로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자신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대졸까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고졸까지'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까지'나 '결혼까지'의 비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대졸까지'나 '취업까지'의 비율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고졸까지'나 '결혼까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자녀관으로서의 남아선호의식은 상당히 감소하였고 딸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였으며 실제 출산율에서도 남아의 비율이 정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예로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과거에는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긍정적 자녀의 가치가 있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자녀의 긍정적 가치가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쇠퇴하였다. 그러나 가족주의 가치관의 순기능적 측면과 가족의 매개적 기능에 대한 재해석 및 그에 따른 대안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주의 자녀관에 새로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성별이나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자녀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 미혼남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과거에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에 비해 희망하는 자녀수가 더 많았던 반면, 오늘날에는 이상적인 자녀수보다 희망하는 자녀수가 더 적다. 여섯째, 자신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책임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가족주의 자녀관의 붕괴가 남아선호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자녀관의 쇠퇴로 이어지고 이를 대체할 자녀관의 부재가 자녀의 필요성이나 이상자녀수를 감소시키며, 이와 더불어 자녀양육은 어려움이 따르는 부정적 자녀가치관과 양육책임기간의 확대가 출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속담을 통해서 대학생의 자녀관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대학교 2곳을 선정하여 재학생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학년별로 1학년생이 40명, 2학년생 67명, 3학년 120명, 4학년이 73명이었으며, 남학생이 134명(44.7%), 여학생이 166명(55.3%)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6년 10월-11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간단한 조사목적과 지침을 안내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고, 2주 후에 회수하였다.

### 2. 측정도구

질문지에는 전통적 자녀관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찬반 정도를 묻는 문항들과 함께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자녀양육의 책임기간 등의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전통적 자녀관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복희·이진숙(1998a)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 중에서 연구결과에 제시된 인식도와 동의정도를 토대로 문항을 부분 발췌하여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남아선호사상 4개 문항, 부정적 딸 가치관 9개 문항, 자녀양육의 어려움 7개 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속담의 동의정도는 그 속담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매우 부동의', '부동의', '잘 모름', '동의', '매우 동의'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관한 질문은 옥선화(1989)의 연구에서 발췌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찬반미정', '약간 반대', '매우반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구대상 대학생들은 그들의 학년, 성별, 가족관계, 출생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들에 대해서도 응답하였다.

전통적 자녀관과 가족주의 자녀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변인별 문항내용

변 인	문 항 내 용
남아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은 내 조상 묘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 묘를 돌본다.</li> <li>• 아들은 장가를 가면 반 남이 되고, 딸은 시집을 가면 온 남이 된다.</li> <li>•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li> <li>• 아들네 집에 가서는 밥 먹고 딸네 집에 가서 물 마신다.</li> </ul>
부정적 딸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은 두 번 서운하다.</li> <li>• 딸은 하나도 많고 아들은 셋도 모자란다.</li> <li>• 맏딸은 살림 밑천이다.</li> <li>• 딸 다섯 치운 집에는 도둑도 안 들어간다.</li> <li>• 외손자는 업고 친손자는 걸린다.</li> <li>• 며느리는 데리고 살아도 딸은 데리고 못산다.</li> <li>•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li> <li>• 영감 밥은 누워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는다.</li> <li>• 시집간 딸년치고 도둑 아닌 년 없다.</li> </ul>
전통적 자녀관	
자녀양육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식이 상팔자</li> <li>•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li> <li>• 자식 없는 사람은 울지 않아도 자식 있는 사람은 운다.</li> <li>• 자식 많은 어미 허리 펴 날 없다.</li> <li>• 자식은 애틀이라</li> <li>• 자식 걸 낳지 속은 못 낳는다.</li> <li>• 부모는 문서 없는 종이다.</li> </ul>
가족주의 자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식을 낳는 중요한 이유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이다.</li> <li>• 자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부모와 의논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li> <li>•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가족 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불행이다.</li> <li>• 조상의 제사를 4대조까지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다.</li> </ul>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그리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인식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자녀관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동의정도는 평균 2.40( $SD=.77$ )으로 '부동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평균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2.83( $SD=.77$ ), 부정적 딸 가치관이 2.46( $SD=.46$ ), 남아선호가 1.92( $SD=.61$ )로, 부정적 딸 가치관과 남아선호를 반영하는 속담에 대해서는 '부동의'에 가깝지만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해서는 '잘 모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딸 가치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는 남아선호사상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보다 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수의 범위를 살펴보면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평균값의 표준편차가 .77이고 최고치가 4.71로 '동의'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 가치관의 경우 최소치가 1.33으로 '매우 부동의'에 해당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선호의식은 많이 사라졌지만 딸에 대한 긍정적 가치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동의 정도

(N=300)			
	범위	M	SD
남아선호	1.00-3.75	1.92	.61
부정적 딸 가치관	1.33-3.78	2.46	.46
자녀양육의 어려움	1.00-4.71	2.83	.77
전 체	1.19-3.46	2.40	.77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전통적인 자녀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 딸 가치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02, p<.05$ ). 즉, 여학생( $M=2.41, SD=.44$ )이 남학생( $M=2.51, SD=.49$ )보다 부정적인 딸 가치관이 반영된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남아선호사상을 반영하는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1.87( $SD=.54$ )인에 비해 딸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는 2.41( $SD=.44$ )로 나타나 남아선호보다 부동의 의사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딸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나, 남아선호에 대한 반대에 비해 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부여는 아직 부족함을 의미한다.

<표 3>  
성별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

(N=300)			
	성별(N)	M(SD)	t
남아선호사상	남(134)	2.00(.69)	1.28
	여(166)	1.87(.54)	
부정적 딸 가치관	남(134)	2.51(.49)	2.02*
	여(166)	2.41(.44)	
자녀양육의 어려움	남(134)	2.85(.84)	.42
	여(166)	2.81(.71)	
전 체	남(134)	2.44(.55)	1.38
	여(166)	2.36(.42)	

\*  $p < .05$

다음으로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전통적 자녀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선호( $t=2.62$ )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t=-2.16$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즉,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를 반영하는 속담에 더 동의하지 않으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에 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의식이 적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

(N=300)			
	동거경험여부(N)	M(SD)	t
남아선호	없다(161)	2.00(.65)	2.61*
	있다(139)	1.82(.55)	
부정적 딸 가치관	없다(161)	2.44(.44)	-.94
	있다(139)	2.48(.49)	
자녀양육의 어려움	없다(161)	2.74(.75)	-2.16*
	있다(139)	2.93(.78)	
전 체	없다(161)	2.38(.46)	-.34
	있다(139)	2.41(.51)	

\*  $p < .05$

## 2.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가족주의 자녀관에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49( $SD=.72$ )로 나타나 '약간 반대'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M=2.14, SD=.70$ )이 남학생( $M=2.38, SD=.84$ )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2.69, p<.01$ ),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 $M=2.39, SD=.74$ )이 없는 학생들( $M=2.39, SD=.74$ )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67, p<.001$ ). 이는 자녀에 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어느 정도 사라져 가고 있으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아직 가족주의 자녀관으로부터 덜 벗어났으며,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족주의 자녀관을 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의 차이

(N=298)			
	구 분(N)	M (SD)	t
성별	남(172)	2.38(.84)	2.69**
	여(126)	2.14(.70)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없다(161)	2.39(.74)	3.67***
	있다(139)	2.07(.77)	
전 체	(298)	2.49(.72)	

\*\*  $p<.01$ , \*\*\*  $p<.001$

## 3. 가족주의 자녀관과 전통적 자녀관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 자녀관을 반영한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의식은 부정적 딸 가치관( $r=.31, p<.05$ ) 및 남아선호사상( $r=.54, p<.05$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할수록 남아선호와 부정적 딸 가치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주의 자녀관이 적을수록 남아선호의식이 적고 딸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가족주의 자녀관과 전통적 자녀관의 관계

	(N=300)			
	가족주의 자녀관	남아선호	부정적 딸 가치관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족주의 자녀관				
남아선호	.54*			
부정적 딸 가치관	.31*	.56*		
자녀양육의 어려움	.06	.32*	.43*	

\*  $p < .05$

#### 4. 전통적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자녀의 필요성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57.3%(172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42%(126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집단의 전통적 자녀관을 반영하고 있는 속담에 대한 동의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부정적 딸 가치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남아선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t=2.81, p<.01$ ). 즉,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 $M=1.80, SD=.68$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M=2.0, SD=.55$ )보다 남아선호를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남아선호의식이 낮지만 자녀의 필요성에 긍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에게 남아선호의식이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두 집단의 가족주의 자녀관에 대한 찬반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t=7.07, p<.001$ ). 즉,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 $M=1.89, SD=.70$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M=2.49, SD=.72$ )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하지만 자녀의 필요성에 긍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에게 가족주의 자녀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자녀의 필요성의 인식여부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과 가족주의 자녀관

		자녀의 필요성(N)	M	SD	t
		(N=298)			
남아선호사상		예 (172)	2.0	.55	2.81*
		아니오(126)	1.80	.68	
전통적 자녀관	부정적 딸 가치관	예 (172)	2.49	.48	1.44
		아니오(126)	2.41	.45	
	자녀양육의 어려움	예 (172)	2.80	.71	-.76
		아니오(126)	2.86	.84	
전 체		예 (172)	2.43	.46	1.25
		아니오(126)	2.36	.52	
가족주의 자녀관		예 (172)	2.49	.72	7.07**
		아니오(126)	1.89	.70	

\*  $p < .01$ , \*\*  $p < .001$

## 5. 전통적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이상 자녀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6명으로 나타났다. 70.6%가 1-2명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2%가 3명 이상, 5%가 0명이라 응답하였다. 이상자녀수가 전통적인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자녀수는 양육의 어려움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6, p < .01$ ). 즉,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 자녀수는 가족주의 자녀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5, p < .01$ ). 즉, 가족주의 자녀관이 강할수록 이상적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높고 가족주의 자녀관이 적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전통적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자녀양육 책임기간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양육의 책임기간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163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졸업'이 73명(24.3%), '결혼할 때까지'가 42명(14.0%), '취업할 때까지'가 22명(7.3%)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 이상이 대학졸업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21.3%는 대학졸업이후에도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양육 책임기간이 전통적인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양육 책임기간은 부정적인 딸 가치관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3, p < .001$ ). 이는 자녀양육의 책임기간을 더 길게 생각할수록 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주의 자녀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9참조>.

<표 8>  
이상자녀수 및 양육책임기간과 전통적 자녀관의 관계

	(N=300)				
	남아 선호사상	부정적 딸가치관	양육의 어려움	이상 자녀수	양육 책임기간
남아선호사상					
부정적 딸 가치관	.56**				
양육의 어려움	.32**	.43**			
이상 자녀수	.05	-.01	-.16*		
양육 책임기간	-.02	-.13*	-.08	.04	

\*  $p < .01$ , \*\*  $p < .001$

<표 9>  
이상자녀수 및 자녀양육 책임기간과 가족주의 자녀관의 관계

	(N=300)		
	가족주의 자녀관	이상 자녀수	자녀양육 책임기간
가족주의 자녀관			
이상 자녀수	.15*		
양육 책임기간	-.02	.04	

\*  $p < .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저출산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미래의 출산력을 좌우하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전통적 자녀관이 얼마나 남아있으며, 전통적 자녀관이 미래 출산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 자녀수 및 자녀양육의 책임기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남아선호와 부정적 딸 가치관 및 양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남아선호의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성은, 1994; 양명숙, 1996; 홍금자, 1990). 그러나 남아선호의식은 많이 사라졌지만 딸에 대한 긍정적



가치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아선호에 대한 의식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김승권 등, 2003; 양명숙, 1996; 조미숙·오선주, 1999; 주영미, 2002), 여자보다 남자가 남아선호의식이 낮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옥선화, 1989). 부정적인 딸 가치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딸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나, 남아선호에 대한 반대에 비해 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부여는 아직 부족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남아선호의식이 더 적으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고등학생이 조부모세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다는 주영미(200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복희 등(1998b)의 연구결과와도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차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특히 자녀에 관한 한 아직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부모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혼부부의 경우 자녀출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전반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아직 미혼인 대학생 집단에서는 오히려 조부모와의 동거를 통한 부정적 경험이 전통적 자녀관에 대한 반발의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가족주의 자녀관에 약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고경애, 2006; 김승권 등, 2003; 박수현, 2003), '약간 찬성'으로 나타난 옥선화(199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족주의 자녀관이 상당히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가족주의 자녀관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아직 가족주의 자녀관으로부터 덜 벗어났으며,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족주의 자녀관으로부터 더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강하다는 박수현(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전통적 자녀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혼남녀 대상의 조복희 등(1998b)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는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로서 보다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은 남아선호사상 및 부정적 딸 가치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주의 자녀관에 반대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부정적 딸 가치관과 남아선호사상을 반영하는 속담에 대한 부동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주의 자녀관이 적을수록 남아선호의식이 적고 딸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쇠퇴가 현대적 자녀관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응집력이나 가족 적응력의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출산력을 저하시

키는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넷째,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 자녀수 및 자녀양육 책임기간과 전통적 자녀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선호사상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계가 있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가족주의 자녀관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양육 책임기간은 딸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과반수이상(57.3%)이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만 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일반인 18-19세의 30.9%, 20-24세의 40.7%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김승권 등(2003)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수치이나 응답의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다. 한편 자녀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보다 남아선호의식과 가족주의 자녀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주의 자녀관의 쇠퇴가 남아선호의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승권 등(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이상적 자녀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 가족주의 자녀관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높고 가족주의 자녀관을 벗어날수록 이상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주의 자녀관의 쇠퇴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계승이 이상적 자녀수의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가족주의에 근거한 자녀의 긍정적 가치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왔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가족주의 자녀관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의 과반수이상(54.3%)이 대학졸업까지는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21.3%는 대학졸업이후에도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보다 자녀양육 책임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구대상 스스로가 대학생으로서 자신도 자녀에 대해 최소한 그 정도의 책임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년실업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졸업자는 고졸자보다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더 길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승권 등, 2003). 자녀양육 책임기간은 부정적인 딸 가치관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육의 책임기간을 더 길게 생각할수록 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 자녀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양육책임기간의 확대가 딸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록 자녀가 가족에 기여하는 바가 감소한다하더라도 결코 양육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수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아선호에 대한 의식변화에 비해 딸의 가치관에 대한 의식변화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딸의 긍정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자녀관에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음을 볼 때, 자녀양육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주의 자녀관의 쇠퇴가 남아선호의 탈피와 딸에 대한 긍정적 가치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이상 자녀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족주의 자녀관을 대체할 가치관의 수립 및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자녀관의 확립은 가족 내에서의 자녀관의 세대간 전이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경애(2006).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조사.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6-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용은(2003). 자녀가치에 대한 세대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어머니·할머니세대 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인하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경(2005).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은(1994). 남고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최민자·이연주·박정환·선우덕·조성현·곽혜경·조애저·김유경·강옥희(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2003-26**. 보건사회연구원.
- 김종택(1994). 속담의 기능과 구조. **새국어 생활**, 4(2), 27-45.
- 김현주(2006). 조부모와의 유대감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07).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속담 이해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현(2003).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덕(1979). 한국가족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일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동인(1996). 10대 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과 손자녀역할: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따른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57-371.
- 설영숙(1977). 한국부모들의 자녀관, **이화여대심리연구논집**, 18, pp. 41-53.
-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효성카톨릭대학교 연구논집**, 55, 225-259.
- 송영석(1993). 청소년의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대전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권 2호, 167-181.
-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 연합뉴스(2007. 12. 23.). "뿌리깊은 한국의 남아선호, 급격히 퇴조"<NYT>.
- 오소정(2001). 속담 이해능력의 발달 :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선화(1989). 현대한국인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은기수(2004). **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

전망. 여성부.

이효재(1990).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조미숙·오선주(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4권 1호**, 67-89.

조복희·이진숙(1998a). 한국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제 19권 1호**, 5-25.

조복희·안선희·이영환·이진숙(1998b). 한국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와 가족환경 및 가족가치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8호**, 105-122.

조복희·이주연(2007). 후기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에 관한연구;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28권 5호**, 19-36.

조복희·이주연·강기숙(2007). 초등학교 아동의 속담인지수준과 인지속담의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제 45권 4호**, 77-86.

주영미(200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력과 가족 적응성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창렬(2002). **우리 속담 연구**. 서울: 일지사.

최하나(2006). 아동의 속담 이해능력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속담 유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 91-1**. 한국여성개발원.

한남제(1985). 가족가치관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정연구**, 137-170.

홍금자(1990). 여고생들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ouglas, J. D. & Peel, B.(1979). The development of metaphor and proverb translation in children grades 1 through 7.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3. 116-119.

Gibbs, R. W. & Beitel, D. (1995). What proverb understanding reveals about how people think.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33-54.

Nippold, M. A., Martin, S. A., & Erskine, B. J.(1988). Proverb comprehension in context : A developmental stud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1. 19-28.

## A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Korean students'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in family, by asking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proverbs concerning the notion of preferring a son, negative value on a daughter, and hardness of child-rear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n general the Korean students were disagreed on the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in family, while many of them still agreed on hardness of child-rearing. We expected that female students were likely to express the stronger disagreement on preferring a son and negative value on a daughter,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referring a son. Also we expected that the students who had lived with their grandparents would more likely to have the traditional values, but they expressed the stronger disagreement on preferring a son than others.

Second, in general the Korean students disagreed on familism. The female students and the students who had lived with their grandparents were likely to express the stronger disagreement on familism.

Third,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ism and preferring a son, and between familism and negative value on a daughter.

Fourth, the students who believed that there was no absolute necessity for the child in a family expressed the stronger disagreement on preferring a son, and scored lower degree on familism.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in a family and the notion of hardness of child-rearing, bu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familism. And as much as they answered the longer child-rearing period, scored positive value on a daughter.

**Key words** :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familism, preferring a son, value on a daughter, hardness of child-rearing